

# “광주여고생들도 4·19 시위 참여했다”

시위 주도 졸업생들, 명예회복 위해 60여년만에 활동 사실 밝혀  
광주여고동창회·개교 100주년 기념회, 참여자 ‘보훈 포상’ 신청  
광주일보 1960년 4월24일자 ‘광여고생 200여명 참여’ 보도 확인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과 더불어 광주 3대 민중항쟁으로 꼽히는 4·19혁명 시위 당시 광주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찬선씨



박덕자씨



양사례씨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승만 정권 하야를 요구하며 1960년 4월 19일 교문을 박차고 시위에 나선 광주여고생들이 60여년 만에 자신의 활동 사실을 밝힌 것이다.

광주여고총동창회는 광주여고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광주여고와 함께 지난 14일 국가보훈처에 광주여고 11기 졸업생 3명에 대한 보훈 포상을 신청했다. 보훈 신청 대상자는 정찬선(80), 박덕자(83), 양사례(80)씨다.

총동창회는 광주여고 개교 100주년(1923년 4월 15일)을 기념해 명예회복과 제대로 된 역사 평가를 위해 동문들의 연명을 받아 건의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광주·전남에서 4·19 관련 보훈 포상을 받은 이들은 광주고 13명, 조대부고 4명 등 총 22명으로 모두 남학생이었다.

광주여고 2학년생으로 시위를 주도했던 정찬선

씨는 “당시 사회상으로는 여자들이 시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여서 60여년이 지나도록 밝히지 못했고 혹시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었다”면서 이제서야 목소리를 낸 까닭을 설명했다.

특히 광주지역 4·19시위에서 남학생들만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잘못 인식돼 있는 점을 바로잡고 ‘광주여고 여학생들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진실이 잊히면 안 된다는 동문들의 제안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5명의 광주여고생들이 주도적으로 4·19 시위를 조직했지만 이 중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들은 3·15 의거에 참가했던 마산고 1학년 김주열이 경찰의 최루탄에 숨진 것을 계기로, 이승만 장



1960년 4월 19일 광주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울타리를 부수고(오른쪽) 시위대에 합류해 옛 전남도청으로 향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기집권을 위한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고 결심하고 시위 한 달여 전부터 광주고와 광주공고 학생들과 수차례 만나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논의했다.

학동 중심사 부근에서 만난 이들은 다음달 시위를 계획했고 당일(1960년 4월 19일)에는 2교시 수업이 끝난 직후 종을 치며 학생들을 규합하기로 했다.

광주일보가 1960년 4월 24일 보도한 ‘시내학생거의 합세, 광여고, 공고, 부고, 상고’라는 제목의 기사에도 광주여고 학생들의 가담이 확인된다.

기사에는 ‘(4월 19일 오후) 1시 20분 광여고 학생 200여명이 동행 편지우물을 밀어 뜨리고 광고생과 합세하였다. 이때부터 데모는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이다’라고 기록돼 있다.

항일 학생 비밀결사인 ‘성진회’ 임원인 독립운동가 고(故) 정우재(1911-1989)씨 딸인 정씨의 기억도 같았다. 다만 광주여고 참가인원은 200여명

이 아니라 700여명이라는 것이 정씨의 주장이다.

정씨는 “2교시 수업이 끝나자 학교 밖에서 ‘광주여고 나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복도를 뛰어다니며 종을 치며 운동장으로 나가자고 소리쳤다”면서 “울타리를 부수고 광주고 남학생들과 합세해 본격적인 데모에 나섰다”고 최루탄과 돌 등을 던지는 경찰에 맞섰다”고 말했다.

옛 전남도청으로 모인 수백명의 학생들은 “자유당은 물러가라”, “3·15 부정선거 웬 말이나” 등의 구호를 외치며 두시간 가량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경찰의 최루탄을 피해 금남로에서 총장으로 이동했고 총장파출소에 돌을 던졌다. 이후 경찰을 피하려다 넘어져 미간에 돌이 찍히는 부상까지 입었다. 경찰서에 연행된 뒤로는 “다시는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경찰관에게 뺨을 맞고 기합까지 당했다.

박씨 역시 시위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으며 사정 없이 굴렀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박씨는 “젖은 몸을 이끌고 시위를 이어가던 중 총장로의 한 상인이 물기를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줬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회상했다.

당시 학급실장을 맡았던 양씨는 서울대 지망생 포기를 하고 전북대 영문학과에 진학했다. 졸업후 교사가 돼 30여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의 역사 선생님을 자처했다. 4월이 되면 누구보다 실감나게 4·19에 대해 설명했고 시위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줬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훈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은 “개인의 명예가 아닌 학교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서 “만약 60여년 전 그날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삶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수완지구 하이트 물류센터 침수, 무슨 일?

누수로 물 수천 톤 ‘유실’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하이트진로물류센터에서 원인불명의 누수로 3일 동안 1000t 가량의 물이 유실됐다.

19일 광주광산소방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 50분께 “지하 1층이 침수됐다”는 업체 직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 당시 지하 1층에는 소방대원이 진입하지 못할 만큼 물이 가득차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수중펌프 2대를 투입해 배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 1층에 전기까지 끊긴 상태라 물이 어느 정도 빠져야만 누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와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3층 규모의 물류센터는 2층 사무실을 제외하면 모두 빈 공간이며 창고 등으로 사용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소방 관계자는 “총 1000t 가량의 물을 밖으로 빼내 누수 양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진입은 힘든 상태다”면서 “20일쯤이면 진입이 가능해 전문 누수업체를 통해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

## 고흥 해역 또 지진

10개월만에 규모 2.0

고흥에서 10개월만에 또 다시 규모 2.0이 넘는 지진이 감지됐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고흥군 북동쪽 11km 해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4월 16일 규모 2.6 지진 이후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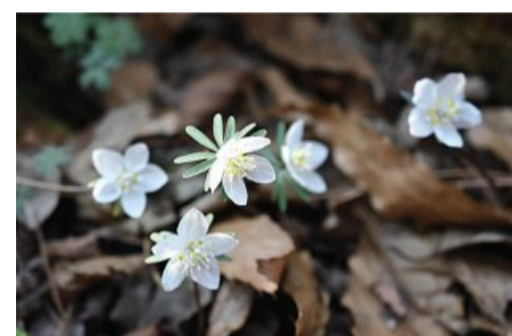
진앙지는 북위 34.67도, 동경 125.07도로 지진 발생 깊이는 8km다.

이날 지진의 최대 진도는 4로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고 잠에서 깰 수 있는 등 다수가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소방에 접수된 지진 감지 신고는 7건이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진은 1995년 12월 21일 고흥에서 지진이 첫 관측된 이래 12번째이자 규모로는 다섯번째다.

고흥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은 2002년 규모 3.0이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다도해에 ‘봄이 왔어요’

고흥 나로도 등 봄꽃 개화

개복수초 등 야생화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곳곳에서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개복수초(사진 왼쪽), 광대나물, 변산바람꽃(오른쪽) 등 봄꽃의 개화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개복수초는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에서 지난달 31일, 광대나물은 지난 11일, 변산바람꽃은 지난 17일 첫 개화가 확인됐다.

개복수초와 변산바람꽃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외나로도 편백숲 탐방로에서 3월 중순까지 관찰할 수 있다.

개복수초를 시작으로 갈매기나무, 갯버들, 평의바람꽃, 개나리, 진달래 등이 꽃을 피워 무등산, 내장산 등지에서도 봄꽃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철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은 “봄철 야생화는 뿌리에 남은 에너지를 사용해 꽃을 피우기 때문에 훼손되면 쉽게 죽는 경향이 있고, 주변 땅속에 아직 올라오지 못한 봄꽃이 있어 감상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지리산 노고단 통행제한 부분 해제

천은사 주차장~시암재휴게소

겨울철 통제됐던 지리산 노고단 일주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제한이 해제됐다.

구례군은 지난해 12월부터 통행을 제한했던 ‘천

은사 주차장 입구-달궁삼거리’ 14km 구간 가운데 ‘천은사 주차장 입구-시암재휴게소’ 8km 구간을 지난 15일부터 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인 ‘시암재휴게소-달궁삼거리’ 6km의 통행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결판 판매중

이방인

이기원이 쓴

문이당

문이당 | 15,000원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